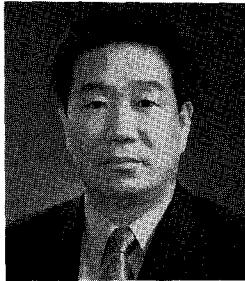


종계 도태 사업, 육계불황 타개의 분수령 되길…



이 언 종

(경농장 대표/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전 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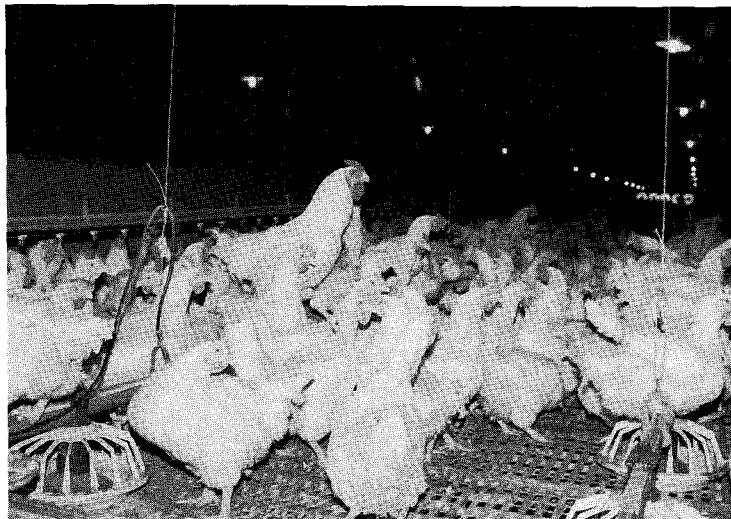
하반기 육계업 불황타개책을 놓고 종계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500원이란 초유의 육계가격앞에 조심스럽게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예고된 결과였다. 신호등을 무시한 운전자의 무지에서 온 결과를 가지고 네탓 내탓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넘어가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을줄로 믿는다.

천재냐, 관재냐, 인재냐, 책임전가보다 작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다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있어야겠다. 늘 그랬듯이 우리 양계산업은 우선 순위에서 항시 밀려나 어깨 넘어였고 그럴때 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처신 또한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생산과잉을 불러온 것이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원인이라면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독버섯처럼 키워온 질병은 행정의 사각지대속에서 무력무력 자라왔고, 자금을 앞세운 기업이기주의의 힘겨누기식 사양가 확보경쟁은 과도한 원종계 수입과 육용종계 과열입식을 부추겨 초유의 600만수란 고지 점령을 눈앞에 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야 어디에 있든 아무도 무죄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육계산업이 너무 한쪽



으로 기형 발전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지 말고 정부의 따스한 손길이 미치는 사랑받는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책임행정이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시장은 2002년 전반기 계육 1인당 소비 7kg이 말해주듯이 관목할 만큼 많은 성장을 해왔다. 또한 월수입 1만톤시대에 육박하면서 총 국내 소비량의 25%에 해당하는 정도로 수입이 급격히 신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또한 일부 계열업체에서 1천톤 가까이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월 실용계 생산량이 4천만수, 후반기 이후부터 2002년도는 계속 된다는데 있다. 금

표1. 연도별 육용원종계 수입현황(수수기준) 참조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7월말현재
수입수수	89,124	92,138	61,542	171,413	69,636

표2. 월별 육용종계 입식 현황(수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225,400	331,800	498,900	466,300	395,900	379,900	580,300						2,878,500
2001	178,700	337,500	407,600	337,100	374,500	312,400	268,200	434,500	474,800	508,400	379,200	264,800	4,277,700
2000	223,800	375,900	394,300	340,300	285,300	266,900	277,400	361,500	393,400	381,000	204,400	140,900	3,645,100

년 4/4분기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이 117,950천수 28.2% 증가했으며, 2003년 1/4분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127,252천수 전년동기 29.7%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별한 닭고기 소비증가 없는한 이미 입식된 종계로도 금후 불황이 장기화 될 조짐은 충분하다.

원종계 수입시기가 후반기이고 보면 2001년도 원종계 수입년평균 수치보다 무려 77.1%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현재 7월말기준 69,636수는 2001년도 상황과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머지않아 500만수 생산도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모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부화장, 도계장, 사육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 규모가 기존 시설보다 크다고 하니 걱정되는 바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수출실적을 보면 979톤으로 점차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본이나 홍콩에 계획대로 수출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파급효과야말로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위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공기업의 기업이념을 가지고 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부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계 노계도태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 동안 50만수의 종계노계도태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육용종계노계도태사업인 만큼 육용종계인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겠으며, 이 길만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깊은 실의에 빠진 육계업계를 조금이라도 희생시키는 길이라 본다.

대한민국 오 ~필승코리아! 700만의 함성이 월드컵을 성공으로 이끌었듯이 다시 한번 크게 외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다같이 4강 신화를 교훈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

끝으로 시급한 대안책으로선 육계산업을 전반적으로 재 조명해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확고한 방역대책 의지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병 방역퇴치체계 확립이야말로 육계산업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칙을 고수하고 계획적인 생산, 소비 예측 이야기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는 시킬 뿐 아니라 육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것이 우리 종계인은 물론 특히, 계열사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 오랫동안 풀리지 못했던 당면 과제들을 정부의 주도하에 하나하나 풀어가는 노력을 산학연이 함께 할 때 육계산업이 실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생산할 수 있는 풍토가 이뤄지리라 기대하며, 비로소 10월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 날이 기다려 진다. **양계**

양계속보 게재내용 및 구독안내

1. 게재내용

- 가. 새소식 : 국내외 양계업계 소식 및 질병, 생산과 관련된 각종 새소식 등을 게재
- 나. 금후전망 : 양계산물 유통에 대한 금후 전망을 육계, 달걀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
- 다. 양계산물 시세 : 일별 달걀, 산지 육계가격 및 각종 병아리, 노계, 토종닭 시세 등
- 라. 10대 회사 주간 양계사료 생산실적
- 마. 육용종계 · 실용계, 산란종계 · 실용계의 주간 종란입란 및 병아리 발생실적

2. 구독료 및 구독방법

- 가. 구독료 : 1부당 연간 15만원[단체구독 : 10만원(20인 이상)]
- 나. 발송방법 : 팩시밀리 또는 E-mail
- 다. 발송횟수 : 주 2회(화, 금요일)

3. 구독신청 및 문의

농협 097-01-000953(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02-588-7651 담당 : 박 성 수)